

금주일언 모든 약 짓지 않고 모든 선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법구경·술보품 288절)

東大新聞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 서구 중구 필동3가 26
☎(02)260-3491~2 FAX(02)279-1270
780-714 경복 경주시 석창동 707 ☎(0561)770-2057

제 1223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7년(불기2541년) 4월 21일 (월요일) 1

시설보완 없는 장애인 특례 입학제

경사로 조차 없어 장애학생 불편만 가중 장기적 안목으로 시설 마련해야

비탈과 계단이 많은 캠퍼스 여건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올해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정원의 특례입학제도를 시행해 입학한 장애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직까지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시설 개선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지난 97년 1월 21일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 정원의 특례입학제도를 업무보고함으로써 97년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채택·시행 대학이 97년 6개 대학에서 97년 29개 대학으로 늘어났으며 본교도 올해부터 시행했다. 본교는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의 수업진행에 필요한 특수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평정한 특수교육대상자 명단에 있는 학생들 중 자체부처자(뇌성마비, 소아마비)에 한해 선발했다.

그러나 본교는 타학교에 비해 장애가 높은 가파른 길과 계단이 많아 일반 학생들도 통행에 한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동국관, 학림관, 명진관, 원흥관, 혜화관 등 본교 건물내·외 어디에도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경사가 없고 지난 3월 준공한 학술

문화관이나 도서관, 식당조차 어디에도 경사로가 없어 이용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지체부자유자인 박성준(한국어문학부)군은 "휴식시간 10분동안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가 없어 계단으로 강의실을 옮겨 다니는 것이 가장 힘들다며 '일서를 쓸 때부터 예상했지만 한국어문학부의 명성때문에 지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97년부터 준비기간을 갖고 97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한 학교측은 행정적인 준비만을 마치고 시설 보완없이 '학생들을 받았다. 학교가 장애학생을 위한 배려는 다리를 뻗지 못해 일반 강의실 의자에는 앉을 수 없었던 장수영(회계학부)군은 위해 다섯개의 강의실에 책상이 놓인 일반의자를 갖다 놓았던 것과 장애학생 보호자의 차량에는 주차비를 받지 않는 것 뿐이다.

인화과 한 관계자는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부족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가능한 한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계자의 한 관계자는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보완에 관해 내려온 방침이 전혀 없다"고 밝혀 장애학생들을 위한 장·단기 계획은 전무한 것

로 드러났다.

당장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입구만이라도 경사로를 만들고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학술문화관 지상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가동하는 화물용 승강기를 개·보수해서 장애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무리라면 경제적인 수직형 리프트라도 설치해 학생들의 불편을 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특별전형 시행은 장애인의 대학교육 기회확대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었기에 진정한 장애학생을 위한 정책시행이었는데 지문을 남긴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장애학생들을 위한 시설 보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3년, 5년, 10년후의 미래를 생각해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진정 도움을 주는 그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삼신서 기자)

4·19 37주기 추모행사 다채

17일 동우탑 참배... 18일 등산대회등

'4·19 희생자 37주기 추모행사가 지난 17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동우탑에서 송석주 총장 및 교무위원, 교직원, 총학생회 학생대표 등 총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삼귀의례 △국민의례 △희생자 영령에 대한 추모 △정각원장의 독경 및 추모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 희생자들의 뜻을 기렸다.

다음날인 18일 북한산에서는 교수, 직원, 학생 등 총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19기념 동국인 등산대회'가 열렸다.

또한, 경주캠퍼스는 경주남산에서 교수·직원·학생 등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등산대회를 실시했다. <관련기사 7면>

한편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회장=구정주·야간경영4)는 19일 종로동지에서 열리는 민중대회에 참가해 4.19 정신 계승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이관배 사무국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며 "우리들을 재료로 한다는 것은 아울러 우리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지난 한주간 실시한 모금운동으로 현재 4백만원의 금이 모아졌으며 오는 23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오는 23일 우리밀 국수 판매

전 이익금 북한동포돕기 성금으로

범국민 북한주민돕기 운동본부는 오는 23일 동국관 학생식당과 교직원 식당, 다량관 학생식당에서 우리밀 국수 1천 5백원에 판매한다.

북한주민돕기 및 우리농산물들이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우리밀국수 판매의 이익금 전액은 북한주민돕기 기금으로 쓰여진다.

불상 봉안 희망자 접수

동국발전기금 기부자 대상 내달 9일까지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본부장=한보광·선학)는 동국발전기금 기부자 중 오는 8월말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에 봉안될 불상의 봉안 희망자를 접수한다.

이 사업에 관해 신관호 부장은 "동국발전기금 기부자 예우의 일환으로 1백만원 이상의 기부자 중 희망자에게 개인이나 가족의 이름이 새겨진 불상을 봉안해 주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히며 "아직 1천여명의 희망자만을 접수했지만 1만개 봉안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동국인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개교 91주년 기념 장기 근속자 표창

오형근교수등 20년 근속자 16명·10년 50명에 기념패 증정

오는 5월 8일 개교 91주년을 맞아 장기 근속자 표창이 있다. 표창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20년 근속자
(서울캠퍼스)
△오형근(불교학) △이순(통계학) △이순용(법학) △정기섭(행정학) △김인제(경제학) △김해원(응용생물학) △백수현(전기공학) △홍영식(컴퓨터공학) △김현규(교육학) △박선영(교육학) △정현영(교육박사) △정대환(총무처 총무과) △서영배(관리처 관계과) △손봉오(관리처 관계과) △이유은(관리처 시설과)
(경주캠퍼스)
△권동범(경주병원 사무국 사무국장)

◇ 10년 근속자
(서울캠퍼스)
△최창술(선학) △임기중(국어국문

학) △이정순(국어국문) △한봉희(법학) △손성(법학) △양영진(사회학) △배형(경제학) △이영환(경제학) △한진수(회계학) △조성구(산업공학) △최순열(국어교육) △홍윤식(역사교육) △김용우(연극영화학) △김윤길(개교 1백주년기념 사업본부 사무장) △이국환(전자계산소 전산과) △정인만(관리처 시설과) △최경만(관리처 시설과) △실용농장과장 △나영근(총무처 총무과) △강은희(비서실) △강지연(기획조정실 예산조정과) △이성이(대학원 교학부) △권지연(행정대학원 교학부) △김종인(연북정보대학원 교학부) △이동은(중앙도서관 열람과) △홍경득(과학관) △함영환(동대신문사) △김경희(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 △임해순(직원노동조합)
(경주캠퍼스)
△황옥자(불교아동학) △왕순구(한문학) △김동현(한문학) △전봉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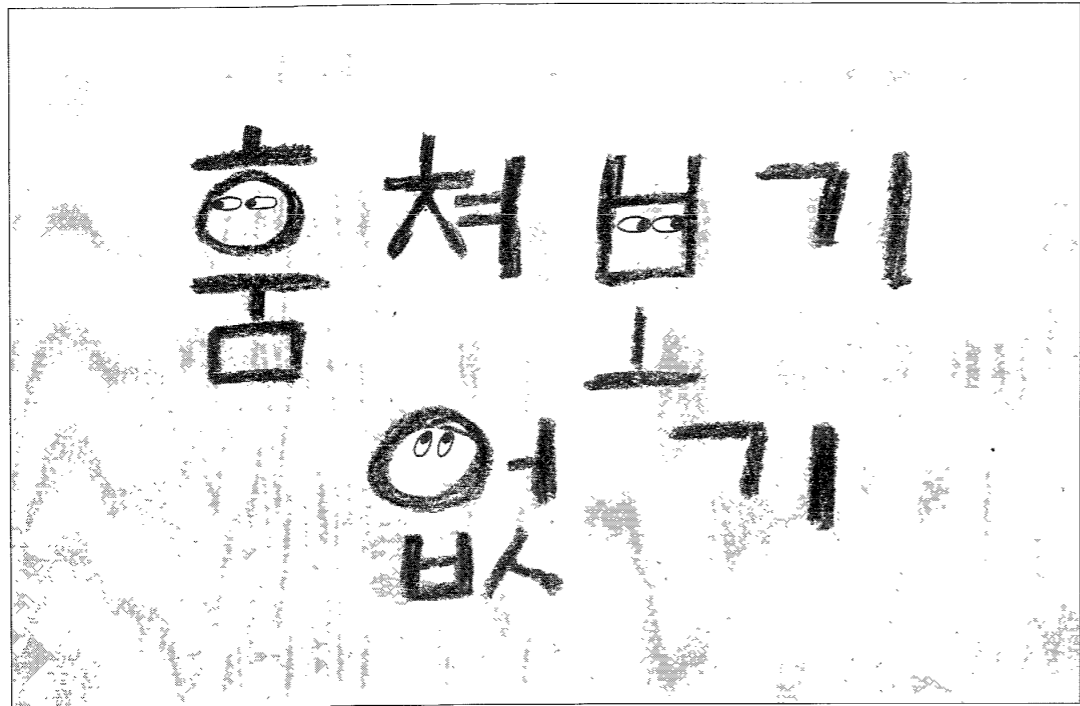
미술사학) △김영철(중어중문학) △정미실(가정교육) △이준성(법학) △박병식(행정학) △김오우(경영학) △임종국(한의학) △김진택(한의학) △권순정(부속실) △이진형(기초과학센터) △김종진(교무처 입학과) △김화곤(사무처 관계과) △황병석(사무처 관계과) △김병근(사무처 총무과) △한진동(사무처 총무과) △김성현(사무처 총무과) △신봉길(사무처 총무과) △권기숙(기획홍보과)

역경원, '대법론' 1 완간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지난 10일 '대성아비달마잡집권1'을 번역·완간했다.

'대법론'이라고 부르는 '대성아비달마잡집권'은 '아비달마잡집'을 해석한 것이며 총 16권으로 이루어졌다.

TOPI
대신
신문사
기획
광고



너 - 동국이!
שמא גרלליס אשפז?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멋지게 발휘하겠다고 술도 안마시고 당구도 안치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면서? 뛰어다니면 땀 흘려 공부를 잊어버릴까봐 곱씹은 사본사본 읽는다고 소문이 파다하더라. 역시 우리 동국이야!

그런데 ...
שמא 시험도중 생각이 안난다고 킁킁할 생각 하는 것은 아니겠지? 학점을 위해 양심을 파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그래서 내게 해주고픈 말
숨·쳐·보·기·없·기

동대신문사

보리수

우리들에게 1960년대의 봄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기였다. 이때는 지난해에 농사 지은 쌀은 다 없어지고 보리 수확은 이른 참으로 여중간한 시기이다. 그 중에서도 한참 보리가 누렇게 익어갈 때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를 두고 '보리고개'라고 하였다. 이러한 춘궁기(春窮期)의 악순환은 해마다 반복되었으며 보체는 아이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썩고 나물을 캐려고 산과 들을 헤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이때에 미국에서 보내준 밀가루, 감자야채가루, 분유 등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모든 식량원조는 배고픔을 미끼로 삼아 우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국의 구호물자와 식량지원을 받아 연명하면서도 반미 감정을 노골화시켰다.

외국사람들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 북에는 보리고개를 맞아 굶주림에 허덕이는 동포와 형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배고픔에는 몇가지 단계를 있다. 초기의 현상으로는 오레 굶으면 살이 쪼그라들고 어떻게 되는 병에 걸리는데 이를 부황(浮腫)이라고 한다. 이런 정도는 우리들도 경험한 바라서 견딜만 하다. 그러나 북한의 사정은 더 심각한 것 같다. 이미 이단계를 넘어서 르윈다의 어린이들처럼 피부가 상점하고 눈과 배는 튀어나와 경기조차도 힘들고 손가락질도 어려워보이는 사진이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유니세프를 통하여 전세계의 빈민들에게 식량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도 굶고 있는 북의 형제들을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못하는 데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당사자인 그들은 일관된 자존심을 내세워 우리에게 배고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외국인들에게는 식량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으로 우리 정부는 이들의 배고픔을 악재로 삼아서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군량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좀더 이성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하여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꺼리고 있는 편이다. 이러한 양자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북쪽의 동포들이나, 이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남쪽의 우리들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하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동물은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하며,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소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여유있는 사람이 배려해야 하며, 가진 사람이 먼저 챙겨주어야 한다. 배고픔은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성적인 문제이며 생사의 문제이다. 피부색이 다른 아프리카인도 도우는데 왜 같은 형제가 굶고 있는데도 눈송고 보고만 있어야 한단 말인가?

부처님께서는 남을 도와 줄때는 무주상보시를 행하라고 하셨다. 무주상보시(無住相佈施)란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이 청정해야 하며 아무런 조건없이 베푸는 것을 말한다. 이제 우리도 굶고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무주상보시를 행해야 할 때인 것 같다.

한보광
불교대 선학과 교수

형제가 굶고 있는데

제5차 '임금 및 단체협상'교섭이 오 늘(21일) 교무회의실에서 열린다.

논의될 노조측 임금협상 요구안은 기능직 등급수당 신설과 기본급 7.6% 인상이며 기존의 행정직 부·과장급 교통비 신설은 철회했다. 이에 김철욱 노조위원장장은 "경제난과 본교 사정을 감안한 최소한의 요구안"이라며 "노조의 임금요구에 대한 학교당국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측은 기능직 등급수당 신설 불허와 5% 임금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임금협상의 조속한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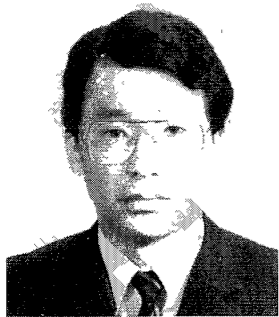
교수동정

제5차 임·단협 개최

다음호는 중간고사 관계로 휴간합니다. 1224호는 5월 12 일자로 발행됩니다.

알림

생명 키우는 환경윤리의식 갖자



고창택
인문대 철학과 교수

오늘날 환경에 대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이란 우리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일구어 나가는 존재론적 터전이다. 그런데 지금의 생활 양식은 그 터전을 빠르게 지켜내지 못하고 갈수록 파괴하는 데 열중하는 듯하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말 그대로 살림, 즉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두운 죽음을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꾸려져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죄없는 후손들을 죽음의 바다로 골목으로 내모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젖어든다. 그런 위기의식을 뿌리로 삼아 생태학적 관점에서 서서 생명론적 상상력을 펼쳐나가는 책 '환경윤리'라 한다면, 내일을 지향하는 첫 번째 화두는 '생명윤리'일 것이다.

우리가 매번하는 오늘의 얼굴은 일단은 화려하고 다채롭고 그리고 위대한 모습으로까지 비친다. 그러나 결모습의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시사논단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면서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현대산업사회의 숨겨진 얼굴은 구겨지고 일그러진 위기의 모습에 닮아있다. 그 위기를 중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환경문제이다. 그 환경위기의 본질적 성격은 허무주의로 생각된다. 허무주의는 주체의 죽음, 역사의 종말, 이념의 탈진 따위와 더불어서 탈현대사회를 부정적으로 특징짓는 사회현상이라 할 터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서구적 합리주의의 정신을 드높이면서 과학적 기술주의의 이념을 정당화해온 역사적 논리이기도 하다. 요컨대 우리는 수단과 기능에서는 '최대의 권력' 혹은 '최고의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체제에서는 '최대의 공허' 혹은 '최고의 무력'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학기술의 환상적 진보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실존적 조건이 박탈당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물론 환경문제는 자연환경과 인간사회로 이루어지는 총체적 연관구조 속에서 발생한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환경적 조건에 의해 환경문제가 일어나고, 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환경위기가 가중되거나 또는 가속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근본원인은 어디까지나 인간사회에서 찾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연환경과 인간사회의 연관은 자연환경과의 부단한 관계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들, 자원이용을 통한 생산과 그 부산물로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기업들, 그리고 개인의 생활이나 기업의 생산을 통제할 뿐 아니라 발생하는 환경문

제에 대해 정책을 입안·시행하는 국가 등의 주요한 행위주체들에 의해 매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주체들의 환경과파나 오염행위는 단지 가시적으로 드러난 잘못된 행동들을 단순히 수정함으로써 근절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 까닭은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행위들은 행위자의 의외로 환경의식에서 비롯되며 그런 왜곡은 특정 행위주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거의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개별적인 환경인식의 틀을 깨고 사회적인 환경의식의 지평을 여는 발판으로서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윤리'를 우리는 강력하게 요청하게 된다.

생명을 키우는 윤리는 무엇보다도 인간행위의 본질을 규정하고 또한 인간행위의 규범적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행위의 준거를 설정하고 도덕적 규율의 실행을 구체화시키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허무주의적 환경위기는 기존의 윤리규범으로 감싸안기엔 너무나 버거운 문제 상황이며 전통적인 행동적 실천강령으로 따라잡기엔 너무나 빨리 변하는 현실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환경윤리란 어떠한 것일까? 그 정황을 두 가지로 간명히 서술 하도록 한다.

첫째로는, '인간의 윤리'에서 '생태학적 윤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윤리는 도덕적 책임을 인간상호간의 인과적인 관계

에서 구했다. 그러나 생태학적 윤리는 '인간의 밖에 존재하는 자연생태계에 대한 책무'와 '앞으로 행해야 할 것의 결정'에서 도덕적 의무를 추구하는 존재론적 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전통윤리가 인간의 존재를 도덕적 행위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던 생태학적 윤리는 바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도덕적 행위의 목적과 내용으로 내세운다. '나의 행위규칙이 일반적인 도덕 법칙이 되어야 할 것처럼 행위하라'는 도덕적 정언명령 대신에 '나의 행위결과가 지구 위의 진정한 인간적 삶의 지속과 일치하도록 행위하라'는 생태학적 정언명령이 세워진다. 그것을 부정적 형식으로 말하면 '나의 행위결과가 인간생명의 미래적 가능성에 대해 파괴적이지 않도록 행위하라'는 것이 된다.

둘째로는, '개체적인 개인윤리'에서 '총체적인 사회윤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생태학적 윤리는 도덕적 책임의 범주를 개별적인 행위주체에서 국한하기를 거부하고 사회적인 행위주체자로 넓혀 나간다. 무엇보다도 온갖 자연생태계가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중요하다. 모든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와 상호적 의존관계를 맺는 원전지 못한 존재로서 항상 위협받는 존재인 까닭이다. 결국 책임귀속이란 맥락에서 도덕적인 개별책임에서 사회적인 연대 책임으로 범위가 확장된다. 또한 생태학적 윤리는 미래지향적이고 지구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초국가적인 세계윤리를 지향해야 한다. 그것은 우선 국가간의 공간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간적인 역사적 의미를 건너 뛰고, 여러 학문간의 학제적 영역도 무너뜨려야만 한다. 요컨대 인간의 생존과 미래의 삶의 질과 공공적 선을 성취하기 위한 '인류공동체적 규범체계'를 만들어가는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안된다

동국인이 자연을 벗삼아 동반대회를 하던 바로 그 시간, 대법원에서는 12·12, 5·18 관련사건 확정 판결이 내려졌고, 그 직후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가 잠정적으로 떠올랐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논의가 제기되자마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법적 잣대로 삼판되었으니 화해와 용서를 통해 사회통합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사면론의 입장과, 이제 비로소 죄가 확인된 만큼 사면은 시기상조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대론이다. 어쨌든 이 두사람에 대한 사면여부는 적어도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주·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된 다음에야 비로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적으로는 먼저 대법원의 판결 정신에 따른 과거청산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그후 성립한 5·6공정권 아래서 벌어진 반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거나 5·6공정권의 부도덕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피해자들에게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청산작업이 모두 이루어지지거나 적어도 그 일정이 가시화되어야만, 전·노 전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사회 전체의 민주화 추세에 역행하는 발리로 악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 주관적으로는 관련 피고인들이 역사와 정의의 심판에 진심으로 승복하고 참회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들이 그러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견상 엄중한 재판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예정된 절차였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번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우리는 우리역사상 처음으로 정권차원에서 벌어진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졌다. 그리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책임과 함께 역사적 처벌을 받는다는 담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 나온 직후의 사면논의는, 성공한 쿠데타의 경우에는 일시적 고통을 당할 지라도 최종적으로는 관대하게 처리된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사면론은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전·노씨의 사면을 주장함으로써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끌어안자는 계산인데, 정작 이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정치권의 알뜰한 타산에 분노하지 느끼고 있다고 한다.

사면권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행사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리가 아니다. 김대통령이 집권초에 추진한 부패 공직자에 대한 숙청이 작년도 8·15 광복절의 '대사면'으로 빛이 비추고, 금융실명제가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지만, 전두환·노태우 전직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한 단죄판은 청사에 기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위기정국의 돌파나 다음 정권창출을 위해 전·노씨를 사면한다면 우리 역사는 김대통령이 내세웠던 '역사바로 세우기'가 한낱 허위였다고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실업률 통계지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사회 특수성 배제된 채 측정

실업률의 정의·잠재적 숫자 등 재고할 필요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의 수치를 한번 살펴보자. 연간 실업률을 정부는 2.4~2.5%로 내다보았다. 실업률이 2.5%면 실제 실업자는 30만명 정도에 불과할 수 있는 인구 3천2백7십9만명으로 예상된다. 즉, 실업률을 살펴보면 일할 수 있는 사람 1백명중 1.5명 정도가 실직상태가 되며, 이 수치가 정확하다면 한국 사회는 고용불안이 아닌 완전 고용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경제불황은 계속 진행되고, 정부는 저성장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위의 이론과는 달리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실업률 산정 관련 전문가들은 지표상에 나타난 실업률이 현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하다고 주장한다. 통계학적으로 살펴보면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체감지표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과학성의 결여로 오차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오차보다는 조사의 한계, 조사방법등의 불완전으로 인해 지표가 특정경제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적인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 고용사정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실업률통계는 조사방법, 우리나라의 특수요건, 실업급여, 사회보장제도 미흡으로 제대로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실업률 조사방법에서 기인하는 오차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최근 4주동안 한번이라도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조사기간이 포함된 1주동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업자 정의가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권고에 의한 지표방법이며 미국, 일본등에서 적용된다. 이 기준법의 단점이라면 현행 실업률 통계내용중 '1주일에 1시간 일한 사람도 취업자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일주일에 1시간 일을 하면 실업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역이나 소기업종사자가 다른나라에 비해 많은 반면 남에게 고용된 피고용자 비율이 낮아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89년도 우리나라 피고용자 비율은 62%인데 비해 미국, 일

본, 필리핀, 대만등에는 66%를 웃도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들로 인해 실업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셋째, 실업급여가 지급된지 8개월정도가 안되는 등 실업자 자신의 실업상태를 밝힐만한 사회보장적 측면의 요인이 적은 점도 있다. 이전과는 달리 실업급여 신청자가 급증하고 구직희망자 인력이 풀리는 경우를 보더라도 취업정보 부족, 실업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잠재적 실업률이 실제적인 실업률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경제활동 참가율이 타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성위주의 고용문화와 남북대치등의 여건으로 인한 특수성과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는 정년주부, 취학, 군입대 등이 비경제 활동에 포함되다 보니 자연히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더구나 비경제 활동분류에는 근로조건이 맞지 않거나 적당한 일을 찾지못해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실업자도 적지 않다.

또한, 경기원천적 고용사정이 어려워져 불안한 취업자, 비정규직 인력을 중심으로 실적이 증가할 경우 이들은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가사인구 등으

로 편입되어 비경제 활동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일 것이며, 각 기업에서 추진하는 명예퇴직, 정년해고등이 확산될 경우 실업지표와 체감실업의 괴리는 더욱 확산되어, 실업률의 수치는 더 늘어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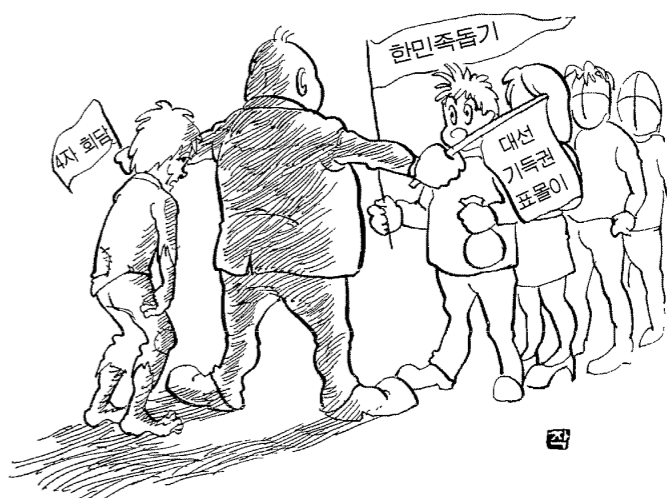
이런 현상들을 두고볼 때 경제활동 참가율은 자연히 줄어들고 이로인한 실업률 수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결하고자 오는 11월부터 실업률의 기준을 선진국이 실시하는 OECD의 '최근 4주 동안 한 차례라도 구직활동을 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으로 바꾸어 실업률을 측정한다고 밝혔다. 물론 실업률은 0.2%~0.3%이상 늘어나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의 차이는 줄어들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공식경제지표가 모든 체감지표를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일반 경제주체들은 경제지표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기때문에 정확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조인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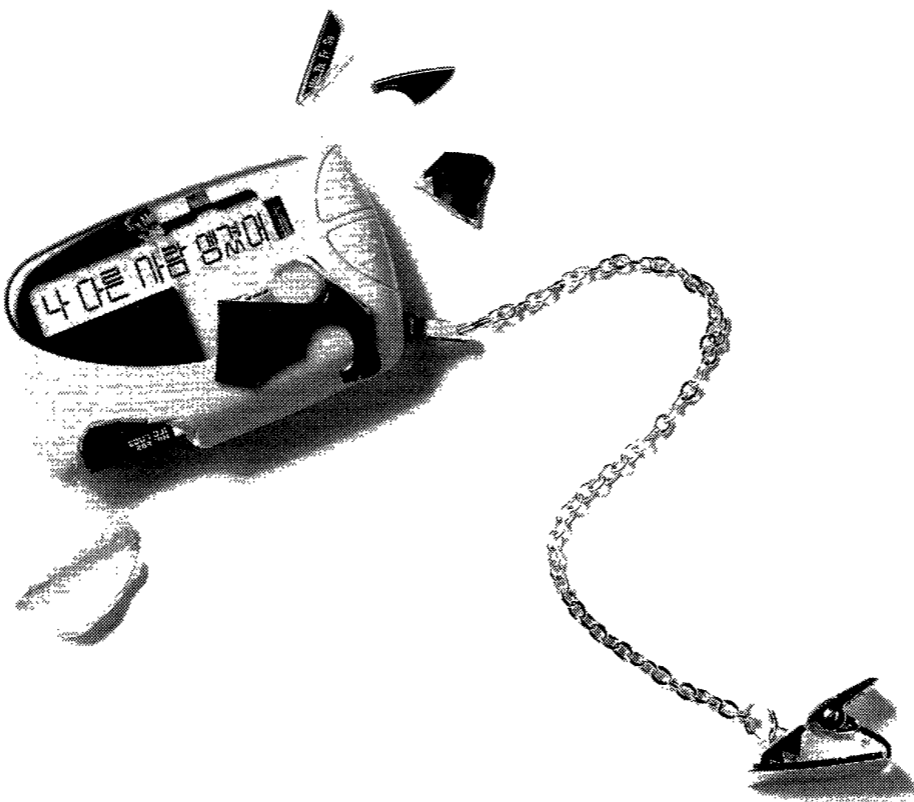
중국만평

고대성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선정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절교통보를 전해드리는
선경의 이동통신도 참 안타깝군요.
진심으로 전국의 대학생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어느새 우리 젊은이들에게 배놓을 수 없는
생활필수품이 되다보니 본의아니게
이런 부작용도 나오게 되는군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011, 012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미래인 011, 012의 SK Telecom은
세계 최초로 CDMA 기술을 상용화하여 한국을
통신기술 선진국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NO.1 기업, 선정인에 있습니다.
바로 그 선정이 약속드립니다.
세계 일류의 정보통신 회사가 몰려와도
우리 시장은 우리 기술로 선정이 지켜나갈 것...

사람이 자원인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선정

• 선정개발사업실 02) 728-0222, 0212
서울특별시 용치로2가 36-1 선정빌딩 1층
• Internet 전용 Homepage http://www.sk.co.kr/

SUNKYONG
선경그룹

4년전 온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한 문민정부. 칼 국수를 먹으며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지만 썩은 곳은 도려내지 못한 채 민심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 정치·경제·사회·외교의 모든 분야에서 '실패'한 문민 4년을 짚어본다. <편집자>

정치·경제·외교 모두 실패한 문민정부



◇사진은 지난 17일에 있었던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에게 듣는 문민 4년의 정치실정' 중 한 장면. 패널의 질문에 김총재가 답변을 하고 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박정민 이하 전대기권)은 '김대중 세정치 국민회의 총재에게 듣는 문민 4년의 정치실정'이란 주제로 전대기권 기자간담회를 지난 17일 서강대 부근 음식점에서 실시했다. 행사에 김총재의 기초연설, 패널 질의·응답, 기자들의 자유질의로 이어졌고 김총재는 때때로 기자들의 끈옥스런 질문을 받을 때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전대기권 기자들과의 패널 질의·응답에 앞서 이어진 기초연설에서 김총재는 지난 문민정권 4년을 '정치·경제·사회·외교 모든 분야에서 실패한 정권'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는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정권의 태생적 한계"라고 말했다. 경제부흥에서 실패한 가장 큰 요인으로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는 문민정부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벌들과의 이

해관계로 인한 한보사건 등 여러 굵직한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해 끝까지 물통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김총재는 "진정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모순을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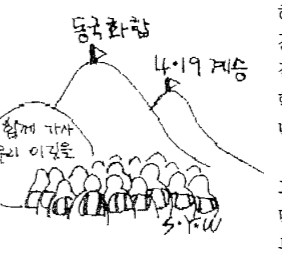
파하려면 여야의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92년에 비준된 남북합의서를 예를 들면서 "현정부는 이미 합의된 내용조차 시행하

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고 적극이지 못하며 일관성 없는 정부의 대북외교에 대해서도 비난을 토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및 자유 질의 응답시간에는 '야당 공조설' '대북 쌀지원문제' '보수적 이미지의 탈바꿈' '학생운동 탄압에 대한 입장' '우리나라 외교의 문제점과 대안' 등 문민 4년에 대한 김총재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이어졌고, 이 자리에서 김총재는 '김대중 대통령의 92년 선거비용으로 1조원이상이 들어갔다'는 직설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경제(노동·재벌), 언론, 통일, 외교분야 등 다방면에 걸친 '김영삼장관 4년의 총체적 실정' 간담회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사회부>

동약로

우정의 무대

지난 18일 북한산에서 열린 제 28회 4·19 기념 동국인 등산대회는 교수·학생·직원 전 동국인이 하나되어, 37년전의 민주화를 향한 불부림을 기리는 자리였다. 기념으로 맞춘 파란 모자가 붓꽃들과 함께 북한산을 장식했고, 산을 오르는 발걸음은 어느때 보다도 힘차다. 북한산에서의 점심시간은 마치 초등학교 볼 소풍처럼 즐겁기만 했고, 모두의 얼굴엔 티 없는 웃음이 가득했다. 팀 단위로 같은 옷과 머리띠를 한다가거나, 피켓을 하나씩 들고 등반하는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보기 좋았다. 마지막 코스인 도선사에 도착해서는 팀 대항 장기자랑이 이어졌다. 장기자랑이 진행되는 동안 어디에선가 '여기 우정의 무대' '우정 경향여행' '아니면 ROTC' '우정' '우정 노래'를 했지만 '우정의 무대'가 무대를 휩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른 학과생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지 않은 것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보다 2배가량이나 많이 참가



해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경쟁과 과, ROTC의 집단적인 참여에 비해 다른 학과의 저조한 참가율은 예년과 발반 차이가 없다. 가정교육과, 산림자연학과, 토목과 등 몇 개의 학과만 보일 뿐 많은 학과나 학부는 등산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순간 열매전에 우연히 들었던 두 학생의 짧은 대화가 생각이 났다. 북한산에 갈거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다른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등산은 무슨 등산이냐 집에서 잠이나 살짝 살 생각인데..."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4·19 정신을 계승하고, 동국인이 다 함께 하는 등산대회가 일부의 행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날 하루 모든 수업이 휴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던 것일까? 과연 등산대회만큼이나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을까? 북한산을 내려 오면서 내내 장기자랑의 모습을 그려본다. 내년엔 '우정의 무대'가 아니라 '동국의 무대' 되기를... <김용환 기자>

◇ 새정치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에게 듣는다

정·경 유착으로 인한 태생적 한계 극복할 수 없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이하 전대기권)의 장인 전대기권사 박정민 편집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질의·응답은 전대기권 강원지부장 임성환 연대신문사 편집장, 경인지부장 함상현 안양대신문사 편집장, 서울 서지부장 장정현 흥대신문사 편집장, 서울 남지부장 김기영 동대신문사 편집장이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대선자금 문제에 있어 만약 김대통령이 대선 당시 한보로부터 비자금 받은 것이 밝혀진다면 지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팽배해 있다. 그런 국민적 정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서지부장 함정현) =정치자금에 김대통령에게 얼마나 흘러갔느냐 보다는 당시 선거비용에 따른 선거비용의 초과여부, 그리고 대가를 요구하는 정치자금으로 인한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노 전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1조 이상의 돈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나도 물론 그때 20억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사실대로 국민에게 밝혔다. 그런데 국민들은 사실대로 밝힌 사람은 매도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에겐 관대하다. 김영삼 대통령은 사실대로 털어놓아야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지난 영수회담 이후 여·야 3당의 타협·합의실이 나오고 있다. 그런 모든 행동들이 3

당이 서로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경인지부장 함상현) =우리나라 언론은 문제가 심각하다. 야당이 힘을 모아 지난번 노동법이 날치기 개악된 것을 무효화 시키고 재개정 논의를 해 민주노총의 합병화를 이루어 냈으며, 요즘 명예 퇴직이다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리해고제를 2년간 유예시키는 결과를 낳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 물론 그런 노력이 노동·경제 양쪽 모두에 민족을 주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한편 한보문제에 있어서도 얽힌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고 김영철도 반드시 증인대에 세울 각오가 되어 있는데 언론의 그런 오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대통령의 지난 4년연의 외교가 F학점이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각종 경제 외교 실패, 또한 미국의 압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우리나라 외교가 김대통령의 무능 때문인지 아니면 역사적인 구조의 문제점 때문인지에 대해 김총재의 생각은 어떠한가(강원지부장 임성환) =그것은 역사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정부가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문민정부이지만 과거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김정권의 태생적 한

계가 이를 극복할 수 없게 한다. 그 한계는 여·야의 완전한 정권교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학생운동 탄압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군부독재 시절보다 더 다양해지고 심해졌다. 이런 학생운동 탄압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그리고 지난 연대시때때 학생운동 해체 발언을 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경인지부장 함상현) =오늘날의 학생운동은 과거 4·19, 6·29 때처럼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소수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이 육인·비난하는 학생운동은 반성해야 한다. 학생운동은 국민들과 동떨어진 운동방향과 방식에 치중해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연대시때때 '학생운동은 스스로 해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학생들의 폭력성과 이질화된 운동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기인했을 뿐이다. 학생들의 폭력적행방식은 정부의 폭력행사 구실을 만들어 줄 것이며 비폭력적인 자세가 필요했다고 본다. -그러면 비판이 제도언론에 비친 학생운동평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운동의 진지한 이해에서 나온 평가인가(경인지부장 함상현) =물론 학생운동에 대한 이해 틀속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분명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런 제도언론 아래 살고 있으며 상대방

에게 악몽을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생운동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얘기한 것이다. -지난 4년간 정부는 대북문제에 있어 강경·온건을 번갈아가며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어떤 것 이라고 생각하십니까(남지부장 김기영) =김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매년 바뀌고 있으며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정책인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을 상황에 따라 정치적으로 약용했으므로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이 이뤄졌다. -북한의 식량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남지부장 김기영) =지금까지 우리측과의 대화를 기피한 북한의 잘못도 크다. 하지만 양 정부가 적대한다고 해서 민간차원에서의 쌀지원까지 막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그러나 다행히 이제 4차회담도 다시 시작되었다고 한다. 남북은 서로간에 줄타기 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아마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쌀보내주기 운동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정식 기자>

사치로 얼룩진 수학·졸업여행 대학생다운 여행풍토 만들어야

몇 해전부터 대학생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있다. 경기발황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는 대학생의 해외여행은 배낭여행, 졸업여행, 어학연수의 형식으로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졸업여행은 누구나 한번쯤 생각하는 것이기에 해외로의 나들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대학생활의 마지막 여행이라 할 수 있는 졸업여행은 강의실 밖의 연장수업으로 견문을 넓히고 다른세계의 문화와 풍습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 졸업여행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졸업여행을 다녀온 모 학생은 "3박 4일동안 놀다가 왔어요. 밤에는 술 마시고, 낮에는 놀고 그런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이번만이 아니다. 어떤학생은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갔어요. 이리저리 드는 돈이 많았어요."라며 졸업여행의 단면을 이야기 했다. 졸업여행이 수학여행이 아닌 즐거위한 여행이 되어버린 것이다. 보고 배운다는 의미보다는 관광이라는 차원에서 대학생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먹고 마시고 노는 여행이 되고 M·T정도로 생각하는 졸업여행에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교뿐만 아니라 각 대학마다 나타난다. 해외여행이 자율화·활성화 되면서부터 외국의 한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은 실태다. 보신관광, 파소비 관광 등의 종

지 않은 모습이 국내의 언론보도에 수없이 나왔으나 여행이라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학생 특유의 실험정신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본래 취지인 졸업여행, 하지만 졸업여행에서 대학생들의 참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이와는 달리 적은 돈으로 배낭여행을 다니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배낭여행시 여러가지를 경험한다고 한다. 지난 겨울울산여행 때 중국 연변을 다녀온 한 학생은 "북한 풍토를 본 적이 있다. 실제로 이야기하는 못했지만 인터넷을 보았더니 '중국사람들의 풍습을 직접 체험하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답변해 해외여행이 좋은 계기가 된 학생도 있었다. 올해도 여객들이 졸업여행시기가 다가왔다. 여러 학교에서 한창 여행지에 대한 논의를 하며 여행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행이 결론을 낳는 수학여행이 될지, 놀고 먹는 관광여행이 될지는 졸업여행을 가는 학생들에게 달려있다. 사회적으로 만연된 소비지향적인 여행풍토를 막고 여행에 대한 재인식을 학생 스스로 함양해 새로운 여행풍토를 형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졸업여행이 이전까지와는 다른 진정한 수학여행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수경 기자>

ICANDO!

PAGODA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신것이 파고다의 특징입니다

http://www.pagodaac.com

<p>미국인 영어회화</p> <p>정규영어 회화과정 집중영어 회화과정</p>	<p>일본어</p> <p>기초 일본어 3개월 완성 동경 일본어 특예 / 일본어 문법 일본어 회화 (초급 I · II · III)</p>	<p>NEW 최신 프로그램</p> <p>통신영어 강좌 (223-6874) 대학편입 영어</p>
<p>영어</p> <p>기초 영어회화 유학·진학·취업 영어</p>	<p>스크린 일어회화 및 청취</p> <p>NHK 일본어</p> <p>교수원인 일본 명문대학 석·박사 출신</p>	<p>전문 프로그램</p> <p>미국 WISCONSIN 대학반</p> <p>독어·불어·중국어 스페인어·러시아어</p>

■ 편리한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 - 종로·입구정·강남·신촌 파고다 4개학원 어디서나 원하는 학원의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로 276-0579 (영어전국)	신촌 719-0579 (영어전국)	입구정 516-0579 (영어전국)	강남 553-0579 (영어전국)
--------------------	--------------------	---------------------	--------------------

외국어 교육의 선구자
파고다외국어학원

프랑스어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의 만남은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alliance française

'97.5.6월 학기 개강: 5.6(화)

BEF I II, MA I II, NSP I II III, AP, PAN, ECH, ESP I II, 자유 회화반, 시사 뉴스반, 동시통역반, 독해작문반, 상업 무역 분야 및 비서직 학위 준비반, 비디오 시청각반, DELF·DALF 준비반

'97 알리앙스 주관 시험

- DELF·DALF 시험
- 프랑스 정부 교육청 주관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 상업 무역 분야 및 비서직 학위증
-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유학 상담

- études en France
- voyages
- stages de langue

이제는 알리앙스에서 직접하세요.

'97 봄학기 언어연수

seoul-centre ☎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taegu ☎ (053)255-4630 (대구)

프랑스어와 프랑스문화의 國際學校
(세계 100여개국에 1000여개의 알리앙스)

Alliance Française

395-1241
395-1240

제 5 전선

무장간첩의 신발에서부터 온련·남파·노발의 충격적 진상!

이영구 전필자의

다나

필자 이영구가 6.25 당시 월북, 인민군 북한 중앙방송위원회 기자 등을 역임하면서 직접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죽으면 살고, 살려주면 죽는다"는 슬로건 아래 특수공작조로 인건병기와 시기는 혹독하고 잔인한 훈련과정과 남파후 활동상 등을 전나라에게 고발한 역사

재미있고 감동깊은 다나의 책은 전국 어느 서점이나 있습니다

● 기사제공 762-1366
 ● 광고 구독문의 741-1661-2

한국현대사의 굵은 한획을 그었던 4·19혁명은 현재에도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가슴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아있다. 당시 혁명의 선두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김항배교수의 회고를 통해 4·19의 시대상황과 교훈을 알아본다. <편집자>

김 항 배
문과대 철학과 교수

1960년 당시 시대상황

일천구백 육십년 4월 19일! 생각만 해도 가슴벅차며,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불굴의 느낌이 파도처럼 가슴 가득 밀려드는 그런 날이다. 나는 그 당시 본교 철학과 삼학년이 재학중이었고 비록 검증을 들인 미군주입제를 교복처럼 입고 다녔지만 마음은 한 없이 자유로운 마음껏 사색의 나래를 펴면서 고담준론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을때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현실은 매우 암담하였다.

아무런 자연 자원도 없는 나라가 6·25로 폐허가 되었으나, 잔국인의 생활은 참담하였으므로, 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허무의 표정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자유당정권은 겨레에게 희망과 의욕을 줄 수 있는 아무런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고, 단지 자유당정권의 집권을 어떻게 하면 연장시킬 수 있는가에 골몰하였다. 그러나 민심은 이내 그들을 패배시켜 주었고, 공명정대한 방법으로는 이승만정권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부정부패의 방법이었다. 그 당시만해도 농촌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정치의식이 그리 높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특정정당의 선전에 동원되었고, 은연중에 국민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다. 지 투표와 개표과정에서 조작 부정을 감행했다. 이렇게 되고보니 대학생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선거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승복할 수 없었고, 그래서 선거를 다시하고 민주주의를 살리자는 구호를 내걸고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 나오게 되었다. 드디어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평화적인 데모를 하였는데 정치권력자의 비호를 받고있던 정치 폭력배들이 데모하는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많은 학생들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바로 그 다음날, 즉 4월 19일이 운명의 날이었다.

4·19 선두에 선 동국인

그날 교정에 모인 학생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누가 먼저 나서서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더 이상은 관공자들의 이런 민행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특히 수련년의 민

◇ 4.19를 회고하며 ...

자기반성과 개혁으로 진정한 민주주의를

국민신뢰 상실한 정권의 말로... 노회두 등 동국인 선봉나서

죽문화의 진흥을 계승한 대표적 민족사학인 본교 학생들의 의기는 남다른 바가 있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교실로부터 뛰어나와 교정에서 모였으며 누구의 지휘도 필요없이 나타났명씩 스크럼을 짜서 경무대로 향하였다. 태평로를 지나 경무대에 이르자 그곳을 지키던 순경들이 공포탄을 쏘면서 저지하였으나 이미 두려움을 떨쳐버린 학생들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 드디어 본교 학생들이 가장 먼저 경무대 바로 앞, 효자동 중점을 집결하게 되었다.

방차가 물을 내 뿜었다. 그 물의 압력이 매우 강해서 맨 앞에 서있던 우리학교 학생이 넘어지고, 깃발도 쓰러져 데모대는 50여미터 후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때 필자는 데모대 맨 앞에 있다가 앞으로 뛰어나가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 세우고, 깃발을 다시 치켜 들었다. 그러자 후퇴했던 데모대가 완호성을 지르면서 전진하였고, 바리케이트를 부수면서

새 정권이 등장하기 까지 우리사회는 매우 불안했다. 이때 대학생들은 스스로 치안유지에 협조했다.

4·19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러면, 4·19의 거 또는 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정권은 어떠한 권모술수를 부린다고 해도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느 특정사회의 이상일 뿐만아니라 이상에 입각한 인류문명의 올바른 방향이므로 어떤 권위도 이에 역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인류사회의 아득한 원천인 실현된 것이 아니라 과정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할리우는 나라들도 부분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인종적 편견이나 종교적 편견에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숙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못된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끊임없는 국민의식수준 향상과 노력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주도하는 세력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개혁의 노력 및 사명감이 요구된다. 민주주의는 구호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 정 의감에 의한 파괴적 행 위에 의해 완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4·19혁명에 참여했던 세대들의 일부가 정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의 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결실을 맺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4·19혁명이 일어난지 37년이 지난 오늘날의 우리사회는 여전히 불안하다. 이 때를 당해서 민주주의의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자임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지망생들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자성해야만 한다. 진정한 이상은 결코 권력의 게임에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깊고 높은 차원의 원력과 자기부정을 통한 진아(眞我) 즉 대아(大我)의 실현에 그 길이 있음을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할 때이다.



◇ 위는 1960년 4월 30일자(제125호)동대신문. 4·19혁명에 관한 생생한 기사가 지면을 메우고 있다. 표시한 인물사진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노회두(당시 법학과)3군.

◇ 동대신문 창간기념 강연을 듣고 ...

미래 사회와 의식의 혁명

미래의 사회변화와 관련해 최근 우리 사회에는 여러가지 변화의 기운들이 일고 있다. 기업 자체내의 혁신 움직임이라든가 대학의 경쟁력 확보 움직임들이 그러한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은 총체적인 해석이 안되고 있는 과도기적인 실정이다. 물론 서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현대과학과 문화적 변화 등에 자극받은 칼브레이너나 토플러, 그리고 최근에 네이시비트 같은 학자들에 의해 변화에 대한 해석이 상당한 정도로 윤곽을 잡아가고는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듯하다. 따라서 미래사회에 대한 총체적 해석 작업이 변화의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만큼 금번 동대신문사의 초청특강의 주제는 이러한 시도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 물론 우리 학교 내에도 이러한 성격의 철학적 강좌들이 있기는 하지만 강사가 인문인이라는 점에서 일반화해보자 현실적이지 않을꺼하는 기대도 했다.

하지만 정규수업까지 결실을 하고 함축한 강연회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어수선했던 강연회 시간 등 진행상의 문제 몇가지는 차치하더라도 강연 내용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강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시대에 있어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대학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서의 사고의 한계에 관한 불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강연에서 강사는 과학과 경제, 사회, 정치 등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한 변화의 시대라고 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는 계획적이고 수직적 구조에서 나오는 양적 추구보다 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설명을 했지만 결국 정리해 보면 미래사회는 가속성, 정보화, 상대적 다양성 등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전의 토플러의 현상분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한 이 강연의 결론은 세가지다. 그것은 성실성, 절단력, 겸손의 3원칙에 각각의 실천 방법으로서 청소, 근면, 정치적 경력에 의한 오만의 자제라고 하는 점이다. 아무래도 운동권 문화에 대한 내부적 비판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총체적 문화 해석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따라서 질의응답 시간에 의식변화의 주제와 전체 세계화의 관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 답변 대신 결국 이러한 분석은 기능주의적이고도 정치적 해석적 작업 밖에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는 보다 극명해 진다. 미래의 사회는 개인 간의 존엄성이 서로 존중되는 가운데 심어져 다른 생물과 무생물까지도 고려한 유기체적 관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강사가 역설한 노동, 자본, 경영의 일체화라는 것도 이런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각 개인 혹은 부분들 간의 '내화'이다. 이것은 정보의 교환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소 통 없는 전체세계가 하나의 생명체로 발전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논의를 더욱 밀고 나가면 대화는 물론이고 그 대화의 주체가 이 유기체 구조를 한 차원 더 높은 상태에서 모두가 동시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효율에서도 미래에 있어 현상세계가 예측불허의 변화를 본질로 하는 것이라면 순간 순간의 흐름에 자신의 의식을 열어 놓아 순발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와 같이 선과 악, 진보와 보수 등의 이분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포용적 차원을 말한다. 컴퓨터에 비유하면 '한글 2.5'에서 '한글 3.0'으로 버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뀔 것과 같이 운영체제 자체를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미래에 다가오는 변화가 혁명적인 것인 우리의 의식 전환 역시 이 정도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간파하고 미래의 실천적 대안을 논한다는 것은 산업사회의 특징이었던 분업화가 관념의 영역에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부 선각자가 계몽운동을 통해 세계를 재편하려고 했던 '엘리트주의'와 별한 다르지 않다. 미래의 세계는 자유롭고, 다양한 개인들의 자연스런 결합으로서 조건의 윤곽이 드러나야 한다. 즉 유기체적 세계에서는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이 역학적으로 기대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의 움직임이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발적 의식의 변화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삶의 가치를 기대할 수가 없다.

위에서 강사가 말 한 기능주의적이고도 정치적인 사고를 통한 해결은 바로 이점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직 산업사회적 사고이고 정보화 시대의 사고는 아니다. 게다가 기능주의적 사고에는 가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되면 미래의 진보 속엔 효율성만 있을 뿐 그것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좋은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방기되므로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에 틀림없다. 다만 앞에서 지적한 개개인의 의식혁명이 전체에 있다면 그 사회는 당연히 높은 효율성을 갖게 될 것이다.

요즘을 많은 이들이 대화문화에 대한 모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구성원 각자의 주체적 의식변화에 대한 반성과 그 주체 하나 하나의 세계적전로의 확장을 포함 때에만 창조적 미래가 다가온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강 종 원
(인도철학과 4)

생명존중 정도경영
중외제약

“렌즈관리, SPC와 MPS와 이으면 똑 소리나게 끝나는 걸!”

“콘택트렌즈 눈에 관계된 것인 만큼 간편하면서도 완벽하게 관리하세요”

일일이 세척하고 소독하고 행글에 보온, 단백질제거까지... 어휴, 귀찮아서 대충대충 ~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찜찜하죠? 이제부터 SPC에 새로 나온 MPS. 단 두가지만 쓰면 만사 O.K! 더욱 간편하죠. 더욱 완벽하죠. 게다가 전화회사인 중외제약 제품, 렌즈관리의 베스트키플이라 할만하죠?

- 렌즈관리의 왕글콤비 - 중외 SPC, MPS
- 렌즈세척과 단백질제거를 완벽하게 해주는 중외 SPC! 하루 한번 세척으로 잘 유지하지 않는 단백질까지 알칼리 제거해주므로 세균오염은 물론, 눈의 자극감까지 관용이 있게 드립니다.
- 행글에서 소독, 보존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새로운 MPS! 편리한 렌즈 케이스 중외 MPS는 중외 SPC와 베스트키플을 이루어 렌즈, 소독, 보존, 윤활유까지 이르는 다양한 기능의 새로운 친구입니다.

렌즈관리의 베스트 키플
SPC **MPS** **에피에스**

중외제약 음성정보시스템
(02)815-1999를 통해 안내받으세요
인공음성으로 렌즈 관리 방법, 렌즈 관리 제품 사용법, 렌즈 관리 주의사항, 렌즈 관리 제품 문의사항 등 렌즈 관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화단신

연극이야기

○세기말 버전...소음을 표현 매체로 삼아 공연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의 연극.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보다 소음, 잡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여러 소리들을 이용해 표현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한다. 페터 한트케의 '키스파'가 원작. 서울·경기 세계 연극제 참가 신청자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창무 포스트 극장에서 공연. 문의는 337-5061.

○나, 김수임...동송아트센터 두 번째 제작공연으로 한국현대사 재조명시리즈 I 편이다.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던 김수임이라는 인텔리여성의 불꽃같은 사랑이야기. 정복근 작, 한태숙 연출, 윤석화 주연. 오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동송아트센터 동송홀에서 공연.

○15회 전국 연극제...한국문화예술평론진흥원과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부산시가 주관하는 연극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부산문화회관,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등에서 열린다. 지역예술을 거쳐 선발된 국민들이 작품을 출품.

영화이야기

○비리케이드...국내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영화. 외국인 노동자 수가 21만명에 달하고 이들의 인권이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기록한 영화. 실제 방글라데시 불법체류노동자들이 직접 출연. 9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당선자를 영화화했다. 신에 윤인오 감독의 데뷔작. 김장근, 김의성 주연. 오는 26일부터 개봉예정.

음악이야기

○97 사랑의 소리, 사랑의 노래...장애인 방송 후원을 위한 대음악회. '사랑의 소리' 방송이 4년째인 달을 맞아 전용수신 안테나를 구할 형편이 안되는 장애인에게 전용안테나를 마련해주기 위한 자선음악회. 양희은, 문성근, 넥스트, 현영애, 조국과 청춘 등 출연. 오는 26일 서강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오후 7시에 개최된다.



'97 문화유산의 해 -인간문화재 장일증선 장순애 씨를 만나

거문고·가야금·아쟁·판소리 등 팔방미인

7살난 여자아이기가 어느 집 창문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다. 무엇인가 흘러 흐르는 것조차 잊은 채 마냥 그렇게 앉아 있다. 창문 밖으로 새어 나오는 창소리. 그것은 그 여자아이를 잡아두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게 도둑공부로 창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르렀다고 말하는 장순애씨는 현재 가야금 병창(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을 보유하고 있는 73세의 인간문화재로 국악계에선 '장일증선'이란 예명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는 가야금 병창을 비롯해 총 94개로 각 지역마다 고루 지정되어 있다. 그 중 가야금 병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지난 88년 12월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되었으며, 현 보유자인 장순애씨를 비롯한 함금덕, 이영희, 정재국 등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전승하고 있다.

또한 가야금 병창의 유래는 구체적으로 문헌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문화재 연구가

박한봉의 조사에 따르면 '가야금 병창의 시조는 김창조이며 오수관, 이소항을 거쳐 오재석, 박귀희에게 전수됐다'고 한다. 그러나 일설에는 그 이전에 민속악을 연주했던 가야금 잡이들에 의해 이미 시도되고 있었다고 한다.

연주 형태는 가야금 연주와 더불어 창이 곁들여지며, 노래와 반주를 한 사람이 겸해 단가나 판소리 중의 한 대목 또는 민요 등을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장순애씨는 고 오재석 선생을 스승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이상을 받아야 명창으로 인정받게 되며, 이제 더 이상의 발을 삼이 없다"고 그동안 자신의 활약을 소개한다.

이에 그녀는 "국악의 황두자인 이국경복부부는 교수를 마저도 창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며, 판소리, 창악 등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해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배우러 오는 사람도 없다"고 말한 뒤 "제자없이 문화재만 되면 뭐하냐"며 지금의 현실을 못내 안타까워한다.

장순애씨의 스승은 장판계씨 외에도 8명이나 된다. 그 이유에 대해 그녀는 "내 전공은 판소리지만 목심 때문에 거문고, 아쟁, 가야금, 산조, 병창까지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논의 끝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받게 되었고, 그녀는 전공인 판소리 계통무예에 이르렀을 때 흥분한 스승들을 찾아 배우는 데 힘썼다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그녀를 서울 문화재단 관리국에서는 서울 중앙 문화재단 지정하여 하였으나, 경북지방 교수들의 논의 끝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받게 되었고, 그녀의 전공인 판소리 계통이 아닌 가야금 병창 보유자라는 엄중한 이름의 소유자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이에 그녀는 "국악의 황두자인 이국경복부부는 교수를 마저도 창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며, 판소리, 창악 등이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해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배우러 오는 사람도 없다"고 말한 뒤 "제자없이 문화재만 되면 뭐하냐"며 지금의 현실을 못내 안타까워한다.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 민족의 얼 문화유산을 알고 가꾸자'는 취지에서 '문화유산시리즈'를 4회에 걸쳐 연재했다. 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깊은 감사드립니다.

1.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2. 손실된 문화재와 그 실체
3. 문화의 거리 인사동을 돌아본다.
4. 경주의 무형문화재를 찾아보면

(편집자)

달 하나 천 강에

촌지와 뇌물



촌지의 본래의 의미는 순수한 마음의 정표를 가르키는 낱말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촌지'라는 낱말은 고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즉, 두 얼굴을 지닌 아누스와 같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촌지는 자기만의 뜻을 담은 선물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대가성 뇌물을 가르킬 때도 있기 때문이다.

정자의 긍정적 의미의 촌지는 주고 받는 서로간에 순수한 마음의 정표가 오고 간다고 하겠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의미의 촌지가 자주 오고 가는 가운데서 밝고 아름다운 그리고 정겨운 모습을 보여주는 미풍양속의 예가 적지 않다. 이러한 긍정적 의미의 촌지는 주는 사람의 진정한 감사, 고마움, 호의가 담겨져 있다. 동시에 받는 사람 역시 그 촌지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오로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고마움을 느낄 뿐이다. 주는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다면 이는 이미 진정한 촌지라 할 수 없다. 또한 받는 사람 역시 무엇인가를 반대급부해야겠다는 부담을 느끼면서 받은 촌지 역시 이미 진정한 의미의 촌지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긍정적 의미의 촌지보다는 부정적 의미의 촌지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우리 사회만큼 촌지가 생활화된 나라도 드물 것이다. 때때로 촌지라는 과거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다 우리 사회는 온통 촌지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직장내의 상하관계에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과정에서, 권력의 상하관계에서, 정경유착의 과정에서 이르기까지 이 부정적 의미의 촌지인 대가성 뇌물이 어느 곳 하나 오고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겠다.

여러 날째 계속되고 있는 한보청문회를 보고 있노라면 순수한 의미의 딱딱 내지 정치자금만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여기에 비하면 교직사회의 촌지는 그 규모가 조족지월이다. 그러나 사회와 언론은 유난히도 촌지를 교직사회에서만 유행하는 비리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다. 어찌되었든 우리 사회의 촌지는 이미 진정한 의미의 촌지 차원을 넘어선 대가성 뇌물이라 규정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오래전 홍공은 정부예산의 3분의 1이 대가성 뇌물에 쓰여질 만큼 부패했다고 한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그 지경에 이른 건 아닐까.

진정한 의미의 촌지와 대가성 뇌물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 양자의 의미가 선명히 구분될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져본다.

정진환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투고글 희망과 절망의 도시 멕시코 시티를 다녀와서

정치부패·경제낙후 넘어서 중남미 교두보로 부상 중

오정수

(산림자원학과 교수)

작은 키에 목이 짧고 피부는 거무잡잡하며 눈은 각이져서 싸움을 잘할 것 같은 모습이 멕시코인들에 대한 첫인상이다. 중남미 여타 도시들보다 스페인식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유럽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멕시코인들의 성질과 약 5백년 전 스페인 사람들을 몰라게 했던 피라미드가 영경의 세월을 지켜보며 장엄하게 세워져 있다. 이것들은 수차례의 강력한 지진에도 끄떡없이 오랜 세월동안 한자리에 있어 왔으며, 임카 문명의 화려했던 역사를 반증하고 있다.

해발 2천2백m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멕시코 시티를 그들은 '데 아페'(Distrito Federal)라 부른다. 이것은 미국의 워싱턴시를 워싱턴 D.C.라고

하는 것과 같다. 멕시코 시티는 별다른 쓰레기처리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처럼 분리수거도 없고 자원의 보존을 위한 재활용도 하지 않는다.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없는 곳도 많지만 거리는 비교적 깨끗하다. 오래전 '쓰레기를 제자리에 놓은 시오'라는 캠페인을 벌였던 효과일 것 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멕시코 시티는 물은 5백km 밖에서 끌어온다. 우리나라의 단군신화처럼 이들은 독수리가 뱀을 먹는 곳에 도시를 세우라는 역사적 신화에 이끌려서 북미를 거쳐서 이곳의 남미 멕시코 지역 의 거대한 호수 위에 도시를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수천년이 지난 현재에는 지진과 과다한 지하수 사용으로 도시 전체가 호수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지하수를 끌어올리지 않고 외지에서 물을 끌어오게 되었다. 물은 해발 2천2백m까지 끌어 올리는 데 따른 기술과 시설들은 신 대륙을 발전한 콜롬버스 이전부터 내

려오는 것이라고 한다. 멕시코 시티는 한때 서유럽적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등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지방으로의 분권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들이 자치권을 행사한다. 이에 따라서 각각의 주에 따른 민부의 차이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60년대에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전해 일렉산더 훔볼트가 '궁전의 도시'라고 부르던 카를로스 루엔테스가 '투명한 공기의 골짜기'라고 부르던 멕시코 시티는 현재 엄청난 교통체증과 공해로 저물어가고 있다.

3백50만 대의 승용차와 20만 대의 버스가 배기가스를 내뿜고 3만개의 공장에서 치명적인 혼합매연을 정화없이 방출하며 엄청난 크기의 쓰레기 처리장과 말라버린 호수 바닥에서 비뚤이 풀고 오는 매연의 먼지가 분지형 도시인 공중에 정체해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유독성 카테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멕시코 시티는 오래전부터 나무를 심었고 조경과 환경보호실천이 놀라게 이루어진 도시다. 그러나 과거에 이들은 환경적 비극의 경험을 겪은 적이 있었다. Xochimilco호수의 물을 모두 퍼낸 결과 다음해 2월 멕시코 시티에 먼지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도시를 어떻게 할 정도로 많은 먼지였다. 결국 호수와 자연자원을 원상태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도시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호수를 다시 재생시키고 자연자원을 조성한 결과 그나마 환경이 좋아지게 되었다.

멕시코 시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대지진이 발생한다. 지난 85년에 발생한 대지진은 커다란 비극이었지만 당시 지진으로 감추어졌던 부실공사 살태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에 그들은 건축 규정의 내진설계 등을 더욱 강화했다. 세계 제2의 석유 매장량을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많은 문화유적들, 1년 내내 은화한 날씨, 화려한 역사, 태평양과 대서양을

함께 갖춘 한반도 3배 크기의 커다란 평덩어리, 그 무엇보다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나라가 멕시코이다.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의 나라인 멕시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멕시코는 연방공화제 국가지만 1929년 이래로 제도혁명당이 지배하는 일당독재국가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바뀌는 6년을 주기로 멕시코 경제가 반두박질하는 이유는 집권여당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이에 재정을 결산한 어대한 이익단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3백년 동안의 스페인 식민지의 풍파를 겪으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 버렸던 멕시코인들은 아직도 데킬라 땅덩어리, 그 무엇보다도 부패한 실사와 메릴게 같은 리튬광 속에서 하루하루를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흔들려 대고 즐기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의 수출시장으로 떠오르는 중남미 대륙의 중심에 위치한 멕시코는 중남미의 핵이며 교두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이다.

"11대 할아버지께서 처음, 나무 한 그루로 시작하셨습니다."

"5대 할아버지께서 숲의 형태를 갖춰 놓으셨습니다."

"지금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숲, 촉림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대를 잇는 나무사랑 - 자연선진국의 시작입니다

검은 빛깔 뿜어내는 울창하다는 독일의 촉림지대 - 세계에서 가장 잘 가꾸어진 숲으로 이름난 이곳은 3백여년에 걸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숲입니다. 긴 안목으로 대를 이어 내 땅의 숲 가꾸기를 실천해 오신 시민들 - 국가의 국민 모두가 함께 살고 가꾸는 그 노력의 3백여년 전 본질적 있었던 독일의 숲을 체계의 지향, 촉림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연선진국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지도층부터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 집니다.

삼척시 국토의 65%, 영진강유역에 1,300억원이나 되지만 문화 산소가 부족한 우리 - 우리나라 숲의 임목축적율은 미국 독일의 1/5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원만 있다면 50여년 후에는 지금의 자연선진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참여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노력 - 그것이 자연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한개발리

▶ Falkaas(펠트 호수) - 독일 촉림지대 소개
▶ 동해시 삼척시(영진강 유역)에 이르는 총 길이 1,000m 고지대 원시적인 환경 체험을 할 수 있는 선진국입니다.

4·19 의미 되새기며 전통국민 즐거운 산행

28회 등산대회 성황 ... ROTC팀 최우수상 수상



4·19기념 제 28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지난 18일 북한산 일대에서 교수·학생·직원 등 약 2천여명이 참여해 대회사상 최대의 인원을 자랑하며 치뤄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9시 30분 4·19 기념탑 앞에서 기념행사를 가진 후 오전 10시경 팀별로 출발했으며 대동문, 북한산장, 위문, 하루재, 도선사로 이어지는 코스를 등반했고 오후 5시경 도선사 일구 휴게터에 모여 시상식과 폐회식을 가졌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동국산악회 이인정 회장은 "출발·도착인원 비교, 산행시간, 산행에 필요한 공평한 심사했지만 우수팀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다고 밝혔다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

◇ 4인 1조팀
최우수상=ROTC 1팀 우수상=경제학과 홍영미팀, 총무과 불사조팀, 관리자 A팀 △자연보호=교육방송국 C팀, 통계학과 B팀, 통계학과 덧쟁이팀, ROTC 2조 안효수팀, ROTC 3조 서승현 팀.

◇ 단체상
△단체 특별상=건축·토목공학부 △학과상 공동 1등=경찰행정학과 체육교육학과 가정교육학과 학과상 3등=건축공학과 △행정부서 특별상 1등=관리처팀, 2등=총무처팀, 3등=기획조정실 팀.

이번 행사에 대해 학생과 문우래 교수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한 것은 우선 동국인의 참여의식이 높아진 것과 행사가 금요일에 진행된 것이 이

유로 분석된다"며 "앞으로 금요일 행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국인 등산대회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는 경찰행정학과, ROTC를 비롯한 많은 팀이 웃을 맞춰주고 참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고 점심식사후 가진 과별시간과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참가자들의 장기자랑 시간은 동국인이 하나되는 흥겨운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산행중에 담배를 피우는 참가자도 예전에 비해 드물어 참가자들의 의식수준이 한결 높아졌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상식전에 가진 장기자랑 시간에서 학생들만의 장기자랑이 계속 되자 일부 직원들이 술을 사다 마시는 등 직원과 학생들간의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총학, 3박4일간 천막단식농성 벌여

민중대회 성사·학원자주 요구안 관철 위해

총학생회(회장=구정주·야간경열)는 지난 14일 불상 앞에서 '민중대회 성사와 학원자주 요구안 관철을 위한 천막 단식농성' 발대식을 가진 후 17일 오후 2시 해단식을 할 때까지 철야단식농성을 진행했다.

원진욱(사비) 부총학생회장은 "18일 한총련 총궐기와 19일 민중대회를 학우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농성단을 기획하게 됐다"며 "지난 9일 학생대표자 회의에서 모인 학원자주 10개 요구안을 학우들에게 알려내고 학교 당국의 숙지를 촉구하는 계기도 겸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농성단은 불대, 공대, 사과대, 예술대를 제외한 7개 단과대에서 조직됐으며 불상과 학관 앞에 임시 천막을 설치하고 50여명의 학생들이 '북한주민 돕기'와 '류재를 열사 장례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다. 기간중 강의실·중문·후문에서 선전행사가

진행됐고 문과대와 사범대 학생회 일원과 학생 10여명이 3박4일간 한양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총련 구국 단식농성단' 지지단식을 실시했다.

이에 사범대 김지희(역교4) 학생회장은 "4·19를 즈음하여 제2의 6월항쟁을 힘차게 벌여나가기 위한 준비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며 "작년 안대항쟁과 같이 정부의 폭압에 학생운동의 대중성이 말할필 것같은 위기의식이 학우들 내에서 모자라 단식농성을 시작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한편 '고 류재를 열사 살인민행과 민생파탄 비리주범 김명삼정권 타도를 위한 제5기 한총련 구국 단식농성단'에 참가한 불교생 신유현(미술2)은 "지난 17일 청와대 진격 투쟁을 벌이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50여명의 한총련 구국단식농성단은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명동성당이 경찰에 의해

완전봉쇄됨에 따라 한양대와 성균관대로 자리를 옮겨 지난 4월 7일부터 19일까지 단식을 진행했다. 이날 신앙의 타 대학생 5명이 연행됐다.

한국어문학부, 백일장 개최

한국어문학부는 지난 19일 북한산에서 백일장을 개최했다. 한국어문학부 1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이 행사에는 홍기삼교수, 김태준 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과 신경림, 정채봉씨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백일장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 운문부분
△장원=이남박 △차상=박수미 △차하=김문환, 홍경희
- ◇ 산문부분
△장원=김민애 △차하=조정훈 △차하=김정민, 김미경

회·전·무·대

아무도 몰라

○...도서관 컴퓨터 이용하려는 한 학생 울분(?)만 삼킨다는데. 다들 아니라 미리 컴퓨터 앞에 자리잡은 학생들이 통신에서 채팅이나 바둑으로 소일하고 있는 것. 기다리고 기다리며 자리나기를 버티지만 쉽게 빈자리 보이지 않고.

어느새 컴퓨터앞에 자리잡은 신당동 할머니 한분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 머느리도 몰라!!!"

3D 업종

○...대졸자들이 3D업종에 몰린다!

다들 아니라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그동안 젊은층에게 홀대받았던 3D 업종에 대학졸업생들이 뛰어들고 있다고.

트럭이나 봉고차로 구멍가게를 돌아다니면서 과자 등을 파는 식품 영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대졸자가 상당수라는데.

이에 3D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졸업생 한이 "배부를 때나 3D지, 배고플 때도 3D입니까?"

비내리는 화장실

○... 똑똑 학생회관 여자 화장실. 물을 담기엔 속속히 젖어오는 욕과 머리. 변기통에 물이 빠지고 빠른 물살은 예고없이 비를 뿌리고...

학교는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른는지 한달이 넘도록 고쳐줄 줄 모르는데.

이에 머릿글은 여학생 한이다. "분수대 빠진 학생 감기걸린다고 나무라는 분들, 화장실서 젖은 머리도 신경좀 써주세요!"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정대수씨 일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한보그를 총화장이 지난 15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현재 정씨는 언어장애와 함께 우측 반신마비 상태여서 다음달 2일 청문회에는 다시 출석하지 못할 것이란데.

병원에 누워있던 정대수씨 품에 한보그가 나타나 한이다 "그러길래 누가 거짓말 하라..."

불문연, 오는 9일 세미나 개최

'불교의 시각에서 본 생명복제' 주제로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중·불교학)은 다음달 9일 부처님오신날 불축행사의 일환으로 '불교의 시각에서 본 생명복제'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개교 90주년기념 문화과 중공장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치러질 이번 행사는 현대과학의 생명복제기술이 지니는 의미와 이에 대한 불교의 입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는 권기중 교수의 발제 강연을 시작으로 △분교 응용생물학과

박인국 교수의 '생명복제의 정의와 현황' △조성일보 공종원 논설위원의 '유전 공학의 발전과 인류의 미래' △전남대 철학과 이종표 교수의 '불교의 생명관' △정병조 부총장의 '불교 윤리와 생명 복제' 등의 발표로 이어진다.

한편 토론자로선 분교의 불교학과 목정배 교수, 서유길 사회교육원장, 서강대 불리학과 박광서 교수, 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 교수 등이 참여한다.

대학원 총학생회 원우한마당 개최

제13대 대학원 총학생회(회장=문안식·사학 박사과정 3학기)는 지난 17·18일 민혜광장에서 총학생회 출범식인 '원우 한마당'과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7일은 축구, 농구, 족구, 배드민턴 등 각종 체육대회 예선전을 대운동장, 중대 농구장, 민혜광장에서 치렀고, 18일은 준결승, 3·4위전, 결승전을 실시했다.

이어 민혜광장에서 실시한 출범식은 △출범식 선인 △대학원장 인사 △집행부 소개 △총학생회 경·부회장 인사 △사설보고 △사상사 및 상품전달 △폐회선언 순으로 치뤄졌다.

중앙도서관, 2일까지 철야개방

중앙도서관(관장=임호일·독어독문학 이하 중도)은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도서관 1층 제 1열람실을 오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철야개방한다.

이에 도서관측은 "중도 1층 현관은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폐쇄되고, 도서관에서 아카이브가 급지된다"는 것을 주의사항으로 밝혔다.

한편, 청소는 아침 6시부터 이뤄져 그 시간에는 학생들이 제 1열람실에 있을 수 없다.

서울·경주캠 재학생 총 1만8천89명

학석과(과정=안준옥)가 지난 10일 집계한 바에 의하면 서울·경주캠퍼스 재학생 수는 총 1만8천8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캠퍼스의 재학생은 1만 1백31명이고 경주캠퍼스의 재학생은 7천958명이다.

한편, 이번 총학생회수는 외국인 특별입학자들과 위탁교육생들은 제외한 통계이다.

학과 소식

신문방송학과
오는 5월 3일 대운동장에서 과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축구, 발야구, 공물리기, 피구 등을 할 계획이다.

경상학부
오는 21일 경상대 계열도서관에서 지난 10일 있었던 예비회화에 이은 정기연회회를 개최한다.



담배의 무덤... 버리는 사람은 있는데 치우는 사람은 어디에. 무심코 던져버린 담배와 쓰레기로 쌓여만 가는 학생회관 2층의 난간. 양심없는 지성인은 담배 필 자격(?)도 없는데... (오인택 기자)

정각원 5월 행사(법회) 안내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전 동국인 및 일반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1. 부처님 오신날 전 동국인 한 등 달기 안내**
본교 정각원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두가 성불하는 지혜의 등,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 의 등, 동국인 하나 되는 화합의 등" 달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 동국가족은 이 행사에 적극 동참하여 무량한 선근공덕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 1) 접수일자 : 4월 21일 - 5월 13일
- 2) 접수처 : 서울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정각원 사무실 100-715
- 3) 연락처 : TEL. 260-3016, FAX 268-2314

- 2. 수계 대법회**
 - 1) 일시 : 5월 1일 (목) 오후 4시
 - 2) 장소 : 정각원 법당
 - 3) 계사 : 오누원 큰 스님 (직지사 회주, 동국학원 이사장)
 - 4) 대상 : 교수, 직원, 학생, 일반인
 - 5) 수계신청 : 4월 14일 - 30일
 - 6) 접수처 : 정각원 사무실
- 3. 명사초청법회**
 - 1) 일시 : 5월 6일 (화) 오후 5시
 - 2) 장소 : 정각원 법당
 - 3) 초청법사 : 동국대학교 총장 송석구
 - 4) 대상 : 전 동국인 및 일반 불자
- 4. 연등 점등식**
 - 1) 일시 : 5월 6일 (화)
 - 2) 장소 : 본교 불상앞
 - 3) 참석대상 : 교직원, 학생, 일반인
- 5. 부처님 오신날 불축 범오식**
 - 1) 일시 : 5월 14일 (수) 오전 8시 30분
 - 2) 장소 : 정각원 법당
 - 3) 법사 : 정각원장 이 법산 스님

동국대학교 대학원 특별전형

■ 모집학과 및 인원 : 각 학과(전공)별 약 1명

계열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인문사회계	불교, 선, 인도철, 국어국문, 영어영문, 영어독문, 일어일본, 사, 미술사, 철, 국민윤리, 교육, 한문, 법, 정치, 행정, 경찰행정, 사회, 경제, 경영, 무역, 회계, 농업경제, 지리	-
자연과학계	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 가정, 농, 임, 조경	수, 물리, 화, 통계, 응용생물, 가정, 농, 임
공학계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전자계산, 기계공, 안전공	전자공, 컴퓨터공, 전기공, 토목공, 건축공, 화학공, 식품공, 산업공
의학계	한의학, 의학	-
학과간 협동과정	멀티미디어전공, 아시아지역전공	-

■ 지원자격
1. 석사학위과정 : 대학전학년 평점평균 4.5만점 기준 3.0이상인 자
2. 박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전학기 평점평균 4.5만점 기준 3.0이상인 자
* 단, 평점평균 만점기준이 다른 경우 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함

■ 전형방법 :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 지원서 교부 : 1997. 4. 28(일) - 5월 13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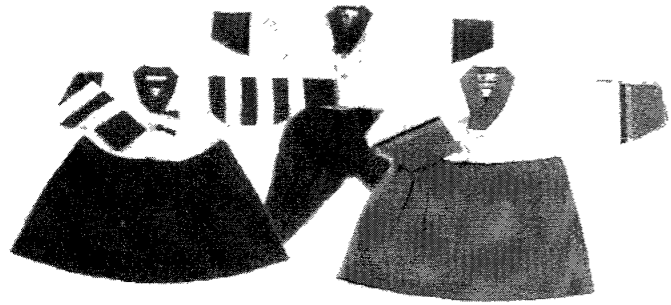
■ 지원서 접수 : 1997. 5. 12(일) - 5월 13일(화)
지원서 교부접수는 09:00-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에서 교부 및 접수합니다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유함. 단, 토요일은 12:00까지)

■ 특별전형일시 : 1997. 5. 23(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260-309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한복 보급 급격한 증가추세

실용성·웃맵시 호평... 문화적 주체성과 전통계승 측면도 탁월



“입어보세요. 품이 넉넉해요.”

경남치우의 조현석(건축토목공)군은 수련 시간에도 생활한복을 즐겨 입는 이유를 묻자 간단히 대답한다.

전통을 계승한다는 거창한 취지가 아니라도 이러한 이유는 생활한복을 입는 충분한 까닭이 된다. 한복은 과거 농경생활이나 직사면에서 벗어나 실 때 옷이 피부에 붙거나 딱딱해서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품이 크고 산을 타는 것 같은 큰 움직임에도 몸이 조이지 않게 여미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자연소재로 만들어져 피부의 손상을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와 개화기를 거치며 ‘우리옷’은 구식으로 ‘양복’은 신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점점 소외되어 갔다. 또한 60~70년대 외세문화 도입과 함께 생생된 서구적 가치관으로 우리 것은 그 맥을 간간히 이어가는 정도로 만족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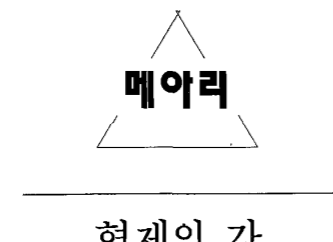
그런 외풍에 80년대 말 학생층의 우리 것 살리기 분위기가 모여서 88년 ‘대중문화 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우리 옷 입기도’ 작은 실천적 움직임

들은 생활한복의 가치를 비싼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같은 가격대인 3만 원 이하의 정바지와 1만 원 이하의 남방을 사는 것은 비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격대 폭이 넓어서 고가 제품도 있지만 일반 중산층에게 별 부담 없는 저가품도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격에 거부감을 갖는 것은 우리 옷에 대한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답했다.

언제부터인가 편리함과 신속함, 간소함을 좋아하는 신문명의 사람들은 문화적 주체성이나 전통계승의 의미를 재버린 채 한복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런식으로라면 어느 순간엔 우리 문화를 상징하는 10가지 중의 한복은 그 이질조차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부분 사람들이 한복을 듣고 오세요. 누가 뭘 입었는데 특이하다거나 예쁘다거나 편해보인다거나 그런 말들이 저희를 알리는 첫걸음인 걸요.” ‘한국옷’ 임정숙씨의 귀뜸이다. 소자본으로 시작한 그녀의 사업은 대량광고 따위는 염두도 못내고 외국 유명상표처럼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은 낯선 이름들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참바지 한 벌과 남방 한벌 값을 아껴 생활한복을 입어보고 주인이 되어 우리 것이 얼마나 좋은지 느껴보자. 느린만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최진 기자)



형제의 강

▲한 새새가 달밤에 벼 한섬을 지고 논둑 길을 걸어갔다. 조금후 그 새새는 빈손으로 그 논둑 길을 되돌아온다. 그해 유난히 흉작이어서 벼 한섬씩을 지고 나르는 모습이 수상쩍기도 하다. 또다른 새새가 벼 한섬을 지고 논둑 길을 걸어간다. 조금후 빈손으로 논둑 길을 되돌아온다. 다음날, 어제 그 새새가 벼 한섬을 지고 논둑길을 걸어갔다. 조금후 다른 새새가 벼 한섬을 지고 논둑길을 걸어간다. 두 새새가 만났다. 그들은 외친다. “형님...”, “아우아...”

▲공주위에 시달리는 북한주민들을 돕자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범국민적’으로만 진행되고 정부에서는 이를 끌어들이는 형식이다. 대한적십자사와 기업체들이 마련한 북한주민돕기 행사를 정부와 안기부가 나서서 막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민간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거리모금에 대해 기부금법 위반을 몰카하며 자

제를 요구했고, 언론기관의 모금활동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두환 정권시절 ‘명화의 땀’ 소동때 벌어졌던 거리모금이 기부금법 위반이라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남한과 미국은 중국이 참여하는 4차회담을 위한 예비회담 개최를 북한쪽에 제의하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대북식량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도 이제는 4차회

담을 조건없이 수락하고 예비회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지난 6·27총선 당시 갑작스레 진행되었던 쌀지원으로 보수층의 호된 질타를 면치 못했던 정부는, 굶어죽는 주체(?)에 머리를 굽힐줄 모르면 북한이 4차회담에 동의하고 나서자 ‘이제 술을 시작해볼까’ 하는 표정이다. ▲연천개 통일이 되어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그렇게 굶주릴 때 당신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는 원망에 사무친 물음을 던진다면 어찌 답할수 있을까. 아사직전에 있는 북한주민들이 만약, 우리의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분노할 것인가. 한민족, 겨레·동포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멀리 휴전선 넘어 그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듯하다. ‘형님, 원망스럽습니다...’ (기)

◆멀티미디어 시대의 광고업계의 동향

뉴커뮤니케이션 개척 여부 기업·광고업계 성패결정 인터넷광고 쌍방향 소통의 첨병... 광고비 싸지만 효과탁월

조형오 (경상대 경상학부 교수)

최근 정보화 혁명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광고업계 및 학계에서도 멀티미디어 매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광고의 유통과 소비의 변화는 세계광고대회(IAA)가 작년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을 때 대회 타이틀이 ‘2000년대의 광고비전’이었고 그 주요 내용이 ‘멀티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광고업계의 대응방안’이었음을 보더라도 멀티미디어 매체가 세계 광고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제일기획, 금강기획, 엘지애드 등 국내 우수 광고업체들도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발맞추어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낮지만 장기 전략의 차원에서 멀티미디어를 탐을 신장하고 상당한 인적, 물적자원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멀티미디어 산업이 아직 발전과정

에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를 정의하

기란 쉽지않지만 PC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TV, CD-ROM 등에서 보듯이 문자 및 동화상 정보를 쌍방향적으로 교환 가능케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의 총아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의 경우 시공을 초월하여 전세계의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관 간의 상호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마케팅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방적 메시지 전달도 구문사의 대중매체와는 달리 개별 고객과의 쌍방향적 관계의 유지 및 강화를 가능케 하여 준다. 가령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종래의 대중매체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메시지의 전달만을 가능케 한다면 멀티미디어는 쌍방향 채널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수시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며 고객의 문에 응답하고 판매 후의 A/S 등 고객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현재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는 2천

3백만 내지 2천7백만명 정도로 추산되

며 국내에서도 올해 인터넷 사용자

인구수는 1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인구는 앞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적 잠재력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향후 광고업계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고객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몇 년전만 해도 인터넷 광고는 실험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인터넷 상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광고는 기존의 광고매체보다 광고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도 활용이 가능하고 광고효과 및 소비자의 반응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알 수 있어 향후 광고 전략의 수립에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인터넷 광고가 어떻게 하면 홈페이지나 배너광고(입간판 형식의 광고)를 잘 제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던 요즘은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각종 경품제공, 이벤트 행사, 동호회 가입, 오락적 정보 및 게임프로그램의 제공 등을 연계시킴으로써 고

객의 지속적인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가 성숙함에 따라서 소비자는 더 이상 집단의 일원으로서 취급받기를 거부하고, 개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는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여 개별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창출 및 유지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서 광고활동의 성패는 어떻게 방대한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멀티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효과 분석이 향후 기업활동과 광고업계의 성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한 시설 투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으며, 광고에 관심 있는 학생들도 기존의 광고매체에 안 시각을 고정시키지 말고 멀티미디어 영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2회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 1997

진한 감동과 리얼리즘의 향연 한국 영상 산업의 발전된 모습 기대

살아 숨쉬는 삶의 기록이 담긴 영화, 바로 다큐멘터리이다. 기존 상업영화에 비해 자유롭고 진취적인 진실의 영상비하이다.

작년에 이어 삼성영상사업단 Q채널 주최로 ‘제2회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1997’이 개최됐다. 동승아트센터 동승홀과 동승 시네마텍에서 지난 18일부터 내일(22일)까지 진행될 이번 행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할 기회가 드문 스페인과 중남미 다큐멘터리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참신한 다큐멘터리를 발굴·지원하고 다큐멘터리의 자연을 확대함으로써 영상문화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제적인 다큐멘터리 축제의 장이 될 듯 하다.

영상제 개막식에서는 주최측인 Q채널의 이종구 대표이사의 개막인사와 함께 개막 초창작인 칠레 파트리시오 구즈 감독의 ‘남미의 십자가(The Southern Cross)’를 상영했다. 이 영화에는 기독교에 맞서 원시종교를 지키려는 원주민과 남미대륙에 첫 발을 내딛던 유럽인과의 갈등이 다큐멘터리만의 독특한 빠른 화면으로 전개되며, 생생한 현장감이 곳곳에 배어있다.

한편, 신선하고 다양한 형식들을 시도한 다큐멘터리 영상물과 기록인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다큐멘터리 영상물 79편중 15편이, 기획된 1백25편중 19편이 본선에 올라 행사기간에 상영된다. 모녀가 인간성 상실시대를 살아 가는 사회를 ‘어머니에게 드리는 편지’, ‘백제문화제의 가치를 다룬’ ‘방이불

망한 백제문화’, ‘폭주족 소년의 삶을 보여주는’ ‘소년들의 밤’, 시내버스에 몸을 맡기는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버스로 돌아온 서울보기’, 제주도 4·3 항쟁의 현재를 투영한 ‘Red-Hunt’ 등 다양한 소재와 실험적 접근 시도가 돋보였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70·80년대 라틴 아메리카 다큐멘터리 9개 작품을 상영하는 ‘라틴아메리카 다큐멘터리 특별 초청전’, 로버트 플레러, 존 그리어슨, 요리스 이벤스 등 다큐멘터리의 미학을 창조하고 폭넓은 가치를 확보한 감독들의 작품전인 ‘월드 다큐멘터리 클래식’, 남미의 대표적인 감독인 쿠바의 산티아고 알바레즈와 브라질의 비디오 운동가 발테르 필레 감독 등의



‘해의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초청전’, ‘해의 영화제 수상 다큐멘터리 상영’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쿠바 산티아고 알바레즈 감독의 강연과 관객과의 대화, 축하공연, 폐막식, 대상 수상작 상영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된다.

다큐멘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진한 감동과 리얼리즘의 향연이 될 ‘제2회 서울 다큐멘터리 영상제1997’을 계기로 한국 영상 산업 특히 다큐멘터리의 한층 발전된 모습을 기대한다.

(오인택 기자)

범국민 북한주민돕기 및 우리 농산물먹기 운동

“우리, 국수먹으러 갑시다.”

“누가 결혼이라도 하나요?”
 “오늘이 북한주민 돕고 우리농민 살리는 '국수먹는날'이잖아요”
 “먹고, 돕고, 살리니 일석삼조?”
 4월 23일은 우리밀 국수 먹는날!

동국관 학생식당, 교직원 식당, 다향관 학생식당에서는 4월 23일 하루에 한해 우리밀 국수를 1,500원에 판매합니다. 이번 행사의 이익금 전액은 북한주민 돕기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식량난으로 죽어가는 북한주민과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농민을 위해 오늘, 우리 모두 국수 먹으러 갑시다.

동대신문사